

## II. 原資材 需給難과 그 解消策

### ○ (需給難의 現況과 餘波)

- 환율 폭등으로 인한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자금 부족, 금융 기관의 수입 신용장 개설 회피 등으로 인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부분의 주요 원자재 재고가 적정 수준에 미달하며, 68% 정도의 기업이 1개월 이내 원자재 재고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원자재 수급난은 생산 중단 및 감축으로 이어져 국내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임

### ○ (原資材 需給의 隘路 事項)

-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국내 원자재 공급업자들의 현금 결제 요구, 수입 신용장 개설 기피 등 복합적인 요인이 원자재 수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국내 원자재 수급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율 상승, 현금 결제 등으로 3~4 배 더 증가된 자금 부담 때문임

### ○ (政府의 對策)

- 정부는 ▶협조 외자를 원자재 수입 자금으로의 활용 ▶정부 및 한은 보증의 신용장 개설 ▶신용장 개설의 특별 보증 대상 범위 확대 ▶차관의 현물 상환 등의 대책으로 원자재 해소에 나섬
- 정부의 각종 대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 (解消策)

- 금리 인하, 지원 자금의 확충,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의 해소책이 필요함
- 단일 지원 창구를 만들거나, 각 정부 부처의 소관 사항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수입 신용장 개설을 적극 유도하고 정부의 부족한 자금을 수출 채산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해야 함

### ○ 需給難의 現況 및 餘波

환율 폭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기관의 수입신용장 개설 회피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율 폭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국내 금융 기관의 신용장 개설 기피 등으로 인해 산업계가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7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원자재 수입이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원가 상승에 의한 자금 부담외에도 최근 풀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직된 수입 신용장 개설에 관한 수입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원자재 수급을 어렵게 했음

주요 원자재의 경우  
우려 적정 재고에 미달하며  
1개월 이내 원자재 재고가 고갈될 것이라는 기업이 68% 이상임

- 3월 현재 本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0%에 불과함
  - 주요 원자재 재고는 적정 수준에 미달하나 심각한 부족 상황은 아님. 그러나 1개월 이내 원자재 재고가 고갈될 것이라는 기업이 68% 이상임
  - 업종별로는 1차 금속, 자동차 트레일러, 전기/전자, 석유류/화학의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기업보다는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조업 전체적으로 수입 원자재의 약 10%만이 국산으로의 대체가 가능함

원자재 수급난은  
생산 중단 및 감축으로  
이어져 국내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임

- 원자재 수급난은 생산 중단 및 감축으로 이어져 국내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경제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3월 本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약 60%의 기업이 원자재난으로 생산/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음
  - 4월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국내 원자재 수입업체 53개社의 46%만이 원자재난이 다소 해소 내지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답함
  - 경제 회생의 길은 환율 상승으로 얻게된 수출 경쟁력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 및 수출의 차질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 ○ 主要 原資材 現況 및 展望('98年 4月 16日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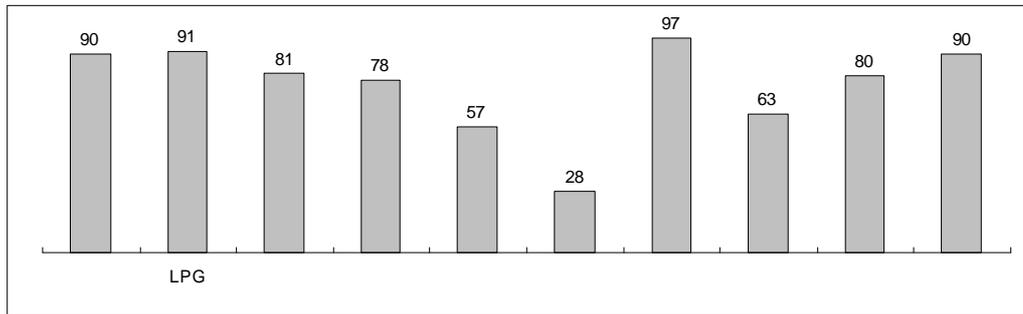
- (원유) 52일 정도의 물량(약 1억 배럴)을 확보하고 있음. 이는 비축 의무 물량인 58일의 90% 정도 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도입 예정분<sup>1)</sup>을 고려하면 61일분의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나프타) 석유 화학 제품의 원재료인 나프타의 경우, 국제 가격의 50% 이상의 하락과 수출 주문 폭증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이 95% 이상 높아진 상태임
  - 국제 가격이 9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산 차질로 인해 국내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주문이 폭증하고 있고, 3월초부터 일부 정상화되고 있는 수입 금융 시스템에 따라 확보가 수월해지고 있음
- (가스) LPG 가스의 경우 의무 재고량이 17일분인데 비해 16일분, LNG 가스는 적정 재고량이 6일분인데 비해 13일분을 보유하고 있음. 도입 예정분을 감안하면 재고량은 충분함
- (고철) 2월중에는 상당히 부족하였으나, 수입 가격의 하락과 3월초부터 일부 정상화되고 있는 수입 금융시스템에 힘입어 고철 수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 (전기동과 알루미늄피) 알루미늄피의 경우 러시아의 경협 차관 30억 달러중 1억7백만 달러를 알루미늄피로 받을 예정임
- (원피) 적정 재고가 30일분인 원피의 경우 19일분(적정 재고 대비 현재고 비율 약 63%)만 보유하고 있음

1) 도입예정분이란 미통관분과 신용장 개설량을 합한 분량임

- (기타 자재) 스텐레스강과 선철, 페로실리콘 등의 중소기업 보유량은 크게 떨어짐. 정부가 신용 보증 대상에 포함 항목을 확대하고 포항제철의 수입 대행을 늘리기로 하였으나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그림> 주요 원자재의 적정 재고 대비 現재고 비율

(’98. 4. 16 현재, 단위: %)



자료: 산업자원부

○ 原資材 確保의 隘路 事項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수입 신용장 개설 기피, 국내 원자재 공급업자들의 현금 결제 요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원자재 수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국내 원자재 수급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금 결제, 환율 상승 등으로 3~4배 더 증가된 자금 부담 때문임

- 원자재 확보의 애로 사항은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상승 ▶수입 신용장 개설 기피 ▶국내 원자재 공급업자들의 현금 결제 요구 ▶국산 원자재로의 대체 어려움 ▶외국 공급업자의 판매 조건 강화 등임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현금 결제 요구도 '97년 10월 19.5%에서 '98년 3월 55.2%로 증가됨
  - 본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30%에 가까운 기업이 은행의 수입 신용장과 개설에 문제를 겪고 있음
- 국내 원자재 수급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금 결제, 환율 상승 등으로 3~4배 더 증가된 자금 부담 때문임
  - 높은 가격과 현금 결제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은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나, 높은 제조원가와 금융 비용으로 수익성을 악화시킴

- 本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80% 이상으로, 주원인은 고금리, 자금 조달의 어려움, 판매 대금의 회수 지연 등으로 나타남
- 40% 이상의 기업이 은행의 대출금 상환 연장 및 신규 대출의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화 부족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이 수입 신용장 개설을 회피하고 있음

- 외화 부족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이 수입 신용장 개설을 회피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을 어렵게 함
  - 국내 은행의 대외 신용도 하락에 따라 수출 기한부어음(usance bill) 개설이 어렵고 연지급 수입<sup>2)</sup>이 거의 안되고 있어 자금난을 더욱 어렵게 함
  - 연지급 수입 허용 기간도 정부가 360일로 연장했으나 은행은 여전히 90일짜리로만 개설해주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의 특별 보증도 인수도 조건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신용장 개설에 따른 각종 수수료는 30~100%씩 올라 평균 매출액의 약 4%를 상회하고 있음

- 또한 수입 신용장 관련 제반 수수료가 원자재 가격의 10% 이상을 지불하는 기업은 20%나 되는 것으로 本 연구원 조사에서 나타남
  - 지급 수수료, 신용장 개설 수수료, 대체료 등 각종 수수료가 30~100%씩 올라 수출 제조 기업 매출의 4%선을 상회하고 있음
  - 일부 시중 은행들은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출용 원자재의 지급보증수수료(term charge)를 종전의 0.1%를 0.2%로, 내수용 원자재를 0.18%에서 0.25%로 올렸음

- 국내 원자재 공급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제조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2) 수입자가 선적 서류 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입

국내 원자재 공급  
업자의 현금 결제  
요구, 가격 인상  
등의 불공정 행위  
도 원자재 수급난  
을 가중시킴

· 이외에도 국산 원자재로의 대체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점, 외국 공급업자들의 판매 조건 강화 등도 원  
자재 수급난을 가중시킴

○ 政府의 對策

정부는 수출용 원  
자재난 완화 대책  
을 수립하여 자금  
활용 및 신용장 개  
설 등의 해소책을  
찾고 있음

-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가 2~3개월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97년 12월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  
율을 맞추기 위해 수입 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던 시점  
부터 이미 예고된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음
-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13일 「수출용 원자재난 완화  
대책」을 마련함
  - 주요 원자재의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의 수입  
업체를 지정하고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증하여 신용  
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함
  - 조달청 및 종합상사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주요 원  
자재의 수입 및 비축을 확대기로 함
  - 중소기업청에 「原部材 수급 동향 점검반」을 설치  
하여 중소기업의 품목별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신용  
장 개설을 대행해주도록 함
  -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 부당 인상, 출고 조절 등 불공  
정 거래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및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함
- 또한 산업자원부는 3월 27일 도입된 세계은행(IBRD)  
차관 금액 2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4월 6일부터 산  
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13개 시중 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1,00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임
  - 알루미늄 등 공급 부족이 심각한 원자재는 연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낮춘다는 방침임

신용장 개설의 특별 보증 대상 범위에 알루미늄, 선철, 전자 부품, 기계 부품 등을 추가시킴

- 수입 신용장 개설에 관한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장 개설의 특별 보증 대상 원자재 범위를 납사, 천연 고무 등 12개 품목에서 알루미늄, 선철, 전자 부품, 기계 부품 등을 추가하였음
  - 조달청의 신용장 개설 대행 품목은 곡물류, 원면, 피혁, 나프타, 펄프, 생고무 등임
  - 연지불 방식의 원자재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함
  - 또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수입 대금 결제를 연체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여 황색 거래업체 지정 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차관의 현물 상환, 정부의 비축 자금 및 원자재의 조기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놓음

- 이외 차관의 현물(원자재) 상환,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자재 확보난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음
  - 호주의 수출보험금융공사 자금 2억 달러를 도입하여 호주産 원면 및 동광석, 알루미늄과 등 부족한 원자재 수입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함
  - 러시아 경협차관 현물로 상환토록 약속된 1억5,700만 달러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1억700만 달러에 대해 알루미늄과 전기동 등 부족 원자재로 들여오기로 함
  - 美 농무성의 원면 수입 자금 2억 달러중 잔여분 1억 7,000만 달러를 4월까지 조기 집행하기로 함
  -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비축 자금 증액분 1,000억 원을 즉시 방출하고 700억 원의 정부 비축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조기 공급하기로 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에서 3,000억 원을 개별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 자금으로 연리 9.5%에 지원해주기로 함
  - 업체당 100억 원까지 허용된 원자재 수입 자금 특별 신용보증 대상에 수출용 원자재, 기초 원자재외에 중소기업용 소재 및 기계, 전자 부품을 추진하기로 함
- 재정경제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지급 보증하에 산업은행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20억 달러를 차입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지원하기로 함

- 또한 한국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차입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조달청의 조달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임

수출입 관련 금융 기관의 취급 수수료 등을 인하하고, 수출 계약, 무역 금융, 원자재 수입·생산·물류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3월 27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수출을 위한 자금난 및 원자재난의 타개 방안이 논의됨
  - 수출입 관련 금융 기관의 취급 수수료, 무역 자동화 수수료 등을 인하하고, 수출 계약, 무역 금융, 원자재 수입·생산·물류 부문의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임
  - 그러나 논의된 대안들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수입 신용장 개설 지원 및 대기업 무역 금융 재개 등 수출입 금융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정책 조율이 필요한 상태임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원자재를 확보하기 어려움

-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요 원자재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며, 지원 자금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월중 발표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3월 本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4%에도 이르지 못함
  - 우리 나라의 연간 원자재 수입액이 700억 달러인데 비해 정부의 지원 규모는 화폐와 현물을 포함하여 약 21억 달러 정도로 턱없이 부족함

### ○ 解消策

- 원자재 수급의 근본 문제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및 환율 안정 ▶수입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 ▶정부의 원자재 수입 지원 규모 확충 및 지원

절차 간소화 ▶ 신용장 개설 유도 및 개설 관련 수수료의 인하가 필요함

단기적으로 원자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충하고 수입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지원 자금을 채산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분해야 함

- 원자재난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원 창구를 만들거나 각 부서의 소관 업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단일 지원 창구를 통해 각종 대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는 지원 규모를 확충하고 수입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해야 함
  - 3월말 현재 총 8,900억 원의 지원이 있었음. 이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약 3~4조 원에 훨씬 못미침
  - 3월 이후 수출입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는 있으나, 특히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생산 감축은 계속 되고 있음
  - 정부의 각종 자금 지원이나 한은 보증 신용장 개설도 은행 등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은행의 적극적인 수입 신용장 개설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함
- 정부의 지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수출 채산성이 높은 순서대로 수입 원자재의 우선 순위를 정해 자금을 배분하여야 함
  - 가격 통제가 심한 원자재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가격 통제 수준을 완화해야 함
- 수입 신용장 개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통관 절차가 2~3개월 걸려 향후 수개월 동안 원자재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통관 업무의 합리화를 통해 통관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박진영 jypark@hri.co.kr ☎724-4074)